

신 춘 규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Shin, Chun-gyu, KIRA

# 2007년 한몽건축사협회 교류방문 보고

## 2007 Korea-Mongolia Registered Architect Interchange Visiting

report

‘한·몽 건축사협회상호협력 협정’에 따른 2007년 몽골건축사협회 방문이 2007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협회에서는 한명수 회장, 류춘수, 이영순, 정명옥 부회장, 심재호 이사와 필자 등 7인이 공식 대표단으로, 그리고 13명의 시·도 건축사회 회장들이 참관단으로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교류에서는 몽골건축사협회(UMA) 측에서 자국의 건축 관련 제도에 대한 변화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제도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 및 운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조직, 회원, 사업 등 전반적인 협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을 세미나 주제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7월 31일 몽골의 Continental 호텔 2층 회의실에서 몽골건축사협회 Batzav Batkhuyag 회장의 인사말과 한명수 회장의 답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몽골건축사협회 측에서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사전 홍보한 결과 약 40여명의 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우선 심재호 이사가 ‘의료시설의 설계실무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 New Paradigm of Design Practice for Healthcare Facilities’ 및 대한건축사협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협회와 관련된 법적 제도 및 건축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사항은 수년간 협회 정책위원회를 맡아 왔던 한명수 회장이 직접 답변하였다.

심재호 이사는 발표를 통해 21세기에는 노인층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주요 질병의 변화, 산업시설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질병과 사고의 증가,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타입의 경쟁 등으로 의료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



1. 우리협회 한명수 회장과 몽골건축사협회 Balzav Batkhuyag 회장  
 2. 우리협회 공식 대표단과 몽골건축사협회 임직원 일동  
 3. 우리협회 한명수 회장이 몽골건축사협회 임직원에게 KIRA 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미니 나담 축제에서 우리 협회 방문단의 단체 사진  
 5. 한·몽 건축사협회 세미나 전경

명하고, 이에 맞는 의료시설 설계에 있어서의 8개 항목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발표에 있어서는 몽골건축사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조직, 운영, 회원 등에 관련되는 법적 근거와 대한건축사협회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몽골건축사협회 Balzav Batkhuyag 회장이 직접 통역을 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부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특히 UMA의 명예회장이자 울란바토르의 명예시민인 원로건축사 Sambuugiin은 원로들에 대한 연금문제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회원의 회비, 정부와의 관계, 공공 프로젝트의 발주방법, 시험제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환송 만찬에는 시·도건축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참관단이 자리를 같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두 협회가 다양한 건축설계 관련 사업 등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 하였고, 올해 몽골건축사협회의 방한일정을 10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UMA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1. UMA의 젊은 건축사들의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연수 교육 요청 시 우리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함.
2.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학생 챔보리 행사시 몽골에서 많은 인원을 참가토록 할 계획인 바, 우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함.
3. UMA는 현재 유고슬라비아와 이태리 등에서 건축사사무소 지사를 몽골에 설립하여 설계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진출하기를 제안하였고, 특히 고층건물, 철골조, 하이테크건축물의 설계 분야가 취약한 만큼 이 분야의 진출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명수 회장은 우리나라와 몽골의 건축사들이 합작형태로 인근 국가의 설계시장에 공동 진출계획의 검토를 제안함.
4. UMA는 북한건축사협회와의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만큼, 향후 북한건축사협회와의 교류 추진 시 우리협회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 ■